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'11년 10월 27일(목) 08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식경제부 정대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(2110-5121), 권혁우 서기관(2110-5122)
방송통신위원회 최우혁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(750-2190), 강필구 사무관(750-2194)
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(2023-4215), 박종배 서기관(2023-4223)
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디지털컨텐츠산업과장(3704-9310), 권용익 사무관(3704-9312)

『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』 발표

- 이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대책 보고 -

< 발표대책 핵심 골자 >

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
◇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'SW사업 대가기준'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
◇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'SW 뱅크' 설립
◇ SW 마이스터高 신설, SW 특성에 맞는 정부 R&D 체계 도입
◇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최중경)는 10.27일(목)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**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**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**「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」**을 보고하였음

○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**▲SW 공정거래질서 확립, ▲SW 기초체력 강화, ▲SW 융합 활성화, ▲지속적 추진체계 확보** 등 **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**로 구성되어 있으며,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

【추진배경】 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

□ 최근 **글로벌 IT시장은**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, **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**되고 있으며,

○ PC·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**융합이 가속화**되고 있음

○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, **SW를 중심으로 IT 산업 주도권이 이동**하고 있음

□ 다가오는 **미래는 HW+SW+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**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

【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】

□ 그간 정부는 **SW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'10.2월, **'SW강국 도약 전략'을 발표**하고, 금년에는 **'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'을 마련**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

□ 그러나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**왜곡된 시장질서**,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**SW 기초체력**, **미흡한 SW 융합** 등 **구조적인 문제**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

□ 따라서 **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**하고, **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**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

【금번 대책의 기본 방향】

□ **IT 서비스**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**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**하고,

□ **패키지SW·임베디드SW**는 인재양성, R&D체계 개선,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**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**할 것임

【정책과제 1 :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】

□ SI 대기업들이 **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**에 의존하고 **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**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, 공공 정보화시장에 *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**하여 전문·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임

* 단, 국방·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 인정

○ 법 개정을 통한 **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**하여 적용할 예정

* (현행)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: 40억, 8천억원 미만 : **20억** 이하 사업 참여 제한
→ (개선)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: 80억, 8천억원 미만 : **40억** 이하 사업 참여 제한

□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**제안요청서(RFP)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**하고, **PMO*제도를 도입할 것임**

* PMO(Project Management Office) : 정보시스템의 기획·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

○ 정보화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**S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유도**하겠음

* 정부가 정하는 SW 개발역량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

□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**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** 하여,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할 예정

○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**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**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갈 것임

□ 민간시장에서도 '일감 몰아주기'와 같은 **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**하고,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것임

○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**총수일가 지분 범위**를 현행 30%에서 20%로 확대하고,

○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(금)의 10%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%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

*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(9.26. 입법예고)

□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, **'SW사업 대가기준' 및 'SW기술자 등급제'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**할 계획

○ **'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'을 마련**하여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 제고를 기대

*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, 국산은 평균 8~9%, 외산은 22% 적용

【정책과제 2 : SW 기초체력 강화】

□ **(인력) SW마이스터고*를 신설**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·육성하고 **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**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임

* 학비면제, 외국어교육,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SW 기술명장을 육성.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

○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, 정부 SW R&D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(현행 50% → 100%)해 R&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것임

□ **(SW 뱅크)**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**'SW 뱅크'를 설립하여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**할 것임

○ 이를 통해,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, 확보된 SW 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,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갈 것임

□ **(SW R&D) '후불형 서바이벌 R&D프로그램'**과 **'소액 도전형 R&D프로그램'**을 신설하고, **'SW 전용 평가 관리시스템'**을 도입하는 등 SW 특성에 맞는 정부 R&D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

* 후불형 서바이벌 R&D : 다수의 연구 참여자간 경쟁 후 최우수팀에 과제비 지급
* 소액 도전형 R&D : 젊은 대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소액 R&D 지급 프로그램

【정책과제 3 : SW융합 활성화】

□ 임베디드 시스템(임베디드 SW+시스템 반도체)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,

○ **주력산업 및 미들테크* 분야**에 **'중소SW-시스템반도체기업 + 주력산업대기업 공동'**으로 참여하는 R&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

* 국내 수요가 상당하나 수입에 의존하고, 업계 역량을 결집하면 사업성이 있는 품목

○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하여 민간 주도로 SW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임

□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,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·제도를 마련하고, '11.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(KWAC)*를 활성화 할 예정

* 이통사·운영체제(OS)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, 이용할 수 있는 웹(Web) 기반의 통합 앱스토어. WAC(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)

【지속적 추진체계 확보】

□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,

○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 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며,

○ 지식경제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**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**하여 IT/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임

* 범부처 IT미래비전 2020 수립을 위한 「IT 미래비전 기획단」 旣출범(10.20)
  - IT 특보를 중심으로 지경·행안·문화부·방통위 국장급, 유관기관 참여

○ 아울러,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**『SW정책연구센터』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하여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** 역할을 부여할 것임

□ 정부는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시 제기된 **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금번 대책에 추가 반영**하여, **차질없이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** 할 것임

<별첨> 『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』

보도 별첨자료

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

2011. 10. 27(목)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IT산업분야 주요 성과 ····· 2

Ⅲ. 정부의 SW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 ··· 3

1. 정부의 SW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····· 3

2. SW산업 발전을 위한 극복과제 ····· 3

Ⅳ.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····· 5

1.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····· 6

2. SW 기초체력 강화 ····· 8

3. SW 융합 활성화 ····· 10

4.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····· 12

Ⅰ. 추진 배경

□ **글로벌 IT 시장은 모바일 분야**를 중심으로 **급속히 재편 중**

○ SW기업인 애플의 아이폰 출시 후, **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** (11년 시장성장률(%) : 휴대폰 13.3, 스마트폰 45.3)

- **국내기업은** HW 경쟁력을 토대로 **금년 스마트폰 시장 1위**(23%)를 차지하고, 삼성은 애플을 추격 (11.2Q 시장점유율(%) : 애플 18.5, 삼성 17.5, LG 5.6)

○ **애플·구글의 TV 진출**, 모토롤라의 휴대폰 사업 매각, HP의 PC 부문 사업포기 등 **IT산업의 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**

○ 또한, 글로벌 진영(애플, 구글, MS)간 **상호 견제**가 심해지면서 **특허분쟁이 급증**하고, **특허확보를 위한 인수합병**이 잇따르는 상황

* 특허분쟁 : 애플 ↔ 구글(삼성), 애플 ↔ 노키아, MS ↔ 삼성
* M&A : 애플·MS의 노텔 인수('11.6), **구글의 모토롤라 인수**('11.8)

□ 이러한 **글로벌 IT 산업재편**은 SW, PC,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**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**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

□ 그 결과, **IT 주도권**이 HW기업 중심에서 **SW 중심으로 변화**하고, **HW+SW+서비스의 융합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强者**로 등극

○ 과거 컴퓨터 중심에서 Web,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 확대로 **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기술 확산**

○ 다만, **SW**도 **중요**하지만, **HW**와 **서비스**의 **뒷받침**이 **없다면 절름발이 경쟁력**을 벗어날 수 없음

* 애플의 노텔 인수,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을 거꾸로 해석하면 HW 역시 SW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

▷ 우리의 강점인 **HW에 SW를 보강하고 융합을 활성화** 하면, 빠른 시일내 **글로벌 IT 강국 달성**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Ⅱ. IT산업분야 주요 성과

□ **IT 융합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**

○ **새로운 흐름인 IT융합 활성화를 추진**하고, **장비·부품 육성에 집중**

* IT융합 사례 : 자동차(웹 브라우징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), 조선(원격 유지보수 시스템)

○ **휴대폰, 반도체, LCD** 등 **주력 품목**이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**규제완화·관세인하** 등을 추진

* 휴대전화에 WIPI(한국형 표준플랫폼) 탑재 의무화 폐지, 이차전지 재료 관세율 인하 등

□ 이러한 노력의 결과, **우리 IT산업의 실질 경쟁력인 수출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주요 품목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크게 향상**

< IT 산업 주요 실적 >

◇ **(IT수출) 세계 5위**와 **흑자 2위 달성**(07년 각각 6위)
* IT수출(억불) : ('07)1,301 → ('10)1,539 → ('11.1~9월)1,174
* 시장점유율(%, '07→'10→'11.上) : (D램) 49→58→63, (LCD) 44→51→53

◇ **(스마트폰)** 시장점유율(%, '09→'10→'11.2Q) : 4.2(5위)→10(4위)→23.1(1위)

◇ **(SW)** 임베디드 SW를 제외한 **SW수출이 1.6배 증가**('07년 7.8억불→'10년 12.3억불)

◇ **IT산업의 고용은 전체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**
* IT전체 : ('07) 71.4만명→('09) 76.3만명 (+4.9만명, 증가율 3.4%↑, 全산업 2.5%↑)

◇ **(중소기업) IT 중소기업의 수출·고용 등이 현저히 증가**
* IT 중소기업의 **年수출증가율**('08~'10) : 11.9% (대기업 : 7.7%)
* IT 중소기업의 **고용 증가율**('07→'09) : 4.7% (IT 전체 3.4%, 전산업 2.5%)
* **SW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점유율**도 증가('09년 34.6%→'11.6월 50.9%)

□ 해외기관이 평가한 **각종 IT 지수**에서도 **상위권 유지** 또는 **상승세**

< 우리나라 IT지수 순위 현황 >

지수명[발표기관] (주요 평가항목)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주요국 순위
전자정부준비지수[UN] (정부 웹수준, IT인프라, 인적자본)	5	–	–	6		1		美2, 英4, 日17
정보통신발전지수[ITU] (ICT 접근성, 활용, 능력 등)	1	1	1	–	2	1*	1	스웨덴2, 日13, 美17
네트워크 준비지수[WEF] (환경, 준비도, 활용도)	24	14	19	9	11	15	10	스웨덴1, 美5, 日19

* ITU(국제전기통신연합)는 '11년 순위 발표시, '10년 우리나라 순위를 3위→1위로 수정·발표

Ⅲ.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

1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

□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『**SW강국 도약전략**』('10.2), 『**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 선진화방안**』('11.2)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

○ **(공공시장 생태계재편)** 상용SW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등 선진적 관행 정착을 위한 SW 관련 법제도 개편

○ **(R&D·신수요창출)** 대형 R&D(WBS) 및 융합 활성화 추진

*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한 WBS(World Best SW) 개발에 총2,000억원 예산 투입

○ **(인력·투자확대)** 차세대 SW 고급·융합인재양성과 투자확대

* SW 마에스트로 과정, SW융합 채용연수사업 및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등 운영

○ **(해외진출)** 범국가적으로 전자정부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

2 SW산업 발전을 위한 극복과제

① 왜곡된 SW 시장질서 확립

○ SI 대기업들이 **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***에 의존하고 **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**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

* SI 대기업들이 매출액의 61%를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의존('10년)

○ **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**과 **불명확한 요구사항**으로 추가 **비용부담** 발생

○ 공공정보시스템이 **용역으로 간주**되어 **중소 SW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재권을 보유하기 어렵고, 독자 제품에 기반**한 성장에 한계

○ **SW사업 대가기준을 정부가 결정**하여 시장자율에 의한 SW 가치 형성이 어렵고, **낮은 유지보수대가**로 인해 **기업의 재투자 여력 부족**

* 당초 SW사업대가기준은 下限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, 上限으로 변질되어 적용
*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, 국산은 평균 9%, 외산은 22% 적용

② 인력·기술·창업 등 취약한 SW 기초체력 강화

○ SW 초급인력은 충분하나, **중·고급인력은 부족**

* 채용/공급(년, 만명) : ('10) 1.9/2.4 → ('11) 2.2/2.5 → ('12) 2.3/2.5 → ('13) 2.3/2.5
* 인력수준별 부족인식률 : 초급(3.3%), 중급(45.0%), 고급(51.7%)

○ **폐쇄적인 개발문화**로 기존에 개발된 SW 모듈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, **SW 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미비**

* 미국은 벤처캐피털(VC) 최우선 투자분야가 SW(18.5%)이나, 국내는 4%에 불과

○ **정부 R&D 제도가 SW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** HW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, **SW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힘든 실정**

③ 미흡한 SW 융합 활성화

○ 임베디드 시스템(임베디드SW+시스템반도체) 경쟁력 부족으로, **주력 제품 생산이 증가하면** 임베디드SW **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**에 직면

* **(자동차)** 임베디드 시스템 비중(%) 7.7('00) → 11.5('10), 수입액(조원) 0.9('00) → 2.9('10)
* **(모바일)** 임베디드 시스템 비중(%) 10.8('00) → 12.4('10), 수입액(조원) 5.6('00) → 8.6('10)

○ SW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**콘텐츠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**로, 법·제도 환경 구축과 관련 생태계 구축이 시급

④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회복

○ 과감한 R&D투자와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한 **글로벌시장 진출에 소홀**

* R&D규모(원) : (해외) MS 6.6조, 오라클 2조 (국내) 삼성 SDS 34억, 안철수연구소 130억

○ 자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기업 **M&A에 소극적**이고, 대신 국내 **他기업 인력 빼가기에 의존**

* 구글은 지난 10년간 100여개 기업을 인수, 검색기업에서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

▷ 현재 국내 SW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,

○ 기업은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SW산업발전을 주도하고,

○ 정부는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SW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필요

Ⅳ.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

젊은 인재와 SW전문기업이
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

기본 방향

◎ IT서비스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·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
→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, 시장 감시 강화 등 추진

◎ 패키지SW·임베디드SW는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
→ 인재양성, R&D체계 개선, 융합 확산 등 적극 모색

정책 부문	정책 과제
SW 공정거래 질서 확립	① 전문·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시장 감시기능 강화 ② 선진적인 수·발주 체계 구축 ③ 시장 자율에 의한 SW대가 적용
SW 기초체력 강화	① SW 고급인재 양성 ② SW 자산 활용 촉진을 위한 SW뱅크 설립 ③ SW 특성에 맞는 정부R&D체계 도입
SW 융합 활성화	① 임베디드 시스템 경쟁력 강화 ②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
지속적 추진체계 확보	① 주파수할당 수입을 SW에 집중 지원 ② 정부 부처간 IT/SW 정책 협의체 운영 ③ SW 정책연구센터 설립

1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

① 전문·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시장 감시기능 강화

□ **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**

○ *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**를 **전면 제한** (SW산업진흥법 개정)

* 단, 국방·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
*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(SW 수주상황실 開개소, '11.10.17)

-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한금액 상향 적용

*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: 40억→80억, 8천억원 미만 대기업 : 20억→40억 (고시 개정)

○ 수발주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**검증·감독기관을 지정·운영**

- 공공 정보화시장 내에서 대기업 편법참여등 발주기관·수주기업의 각종 제도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(SW산업진흥법 개정)

* 미준수 사례 적발시 해당기관에 계약 취소 권고는 물론, 위반기관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제도 준수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

○ SW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이 공공 정보화사업에 참여토록 유도

* 정부가 정하는 SW개발역량 인증 기업에 공공사업 참여 우대 강화(고시 개정)

□ **민간 정보화시장 기업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**

○ **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**,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**불공정행위 혐의 발견시 엄정 조치**

○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**공시대상 범위를 확대**하고 계약방식(경쟁입찰/수의계약)도 공시 추진

*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
·계열회사: 총수일가 지분율 30% 이상 → 총수일가 지분율 20% 이상
·거래금액: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% 또는 100억원 이상 → 5%, 50억원

○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**SW 업종의 기술탈취,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**

*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의 자율시정 적극 유도

② 선진적인 수·발주체계 구축

□ 제안요청서(RFP) 상세 의무화 및 PMO제도 도입

○ 사업 발주시 **요구사항이 명확한 RFP 작성 의무화** (SW산업진흥법 개정)

*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상세RFP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 (기재부)

○ 발주기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**PMO제도 도입** (전자정부법 개정)

* PMO(Project Management Office) : 정보시스템의 기획·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
* 사업관리 전문조직(PMO)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 (기재부)

□ 공공 정보화시스템 지식재산권을 개발 기업이 행사

○ 정보화사업 결과물은 발주기관과 민간 개발기업이 공동소유하되, 계약체결범위 이외의 실시권을 개발기업에 부여

* SW 용역결과물 지재권 소유·행사 원칙 변경 (기재부·행안부「용역계약일반조건」개정)

□ 상용 SW제품 시장 침해방지

○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

* 발주前 상용SW제품 적용가능성과 직접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(행안부「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지침」개정)

③ 시장 자율에 의한 SW대가 적용

□ 정부의 『SW사업 대가기준』 및 『SW기술자 등급제』 폐지

○ 'SW사업 대가기준'과 'SW기술자 등급제'를 **폐지 후, 민간 이양**

* 'SW사업대가기준(고시)'는 일몰제('12.2.26)로 자동 폐지, 'SW기술자 등급제'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지 (민간경력관리기관에 이양)

○ SW사업 대가기준 폐지에 따른 **시장혼란을 최소화**하기 위해 **'사업대가 저장소(Repository)'** 구축·운영

* 지식경제부에 모든 공공 발주기관의 사업내역 제출 의무화 (SW산업진흥법 개정)

□ 선진형 유지보수체제로 전환

○ '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'을 마련, 공공 정보화사업에 적용

* SW업계-정부(기재·지경·행안부) 합동T/F에서 가이드라인 마련

2 SW 기초체력 강화

① SW 고급인재 양성

□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규 SW 교육과정 강화

○ **SW 마이스터高 신설**로 조기 SW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

* 군복무 커리어패스 연결 및 취업·창업 패키지형 지원(지경·교과·국방부 공동추진)

○ **초중등 STEAM***(융합인재) 교육 강화 및 **문제해결형·융합형 수업모델** 개발·보급으로 SW 인재 양성 기반 강화

* 과학(Science), 기술(Technology), 공학(Engineering), 예술(Art), 수학(Mathematics)

○ 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수요가 반영된 **대학 SW교과과정을 마련**

* 자동차·전자·항공 등 산업별 협의체와 대교협 등이 참여(지경·교과부 공동추진)

○ 공동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**해외 유수 SW 대학과 함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**하는 SW 대학원 과정 운영

* 국내 SW인재를 미국 등 SW선진국에 유학생으로 파견 병행

○ **해외 고급 인재 귀국**시 **금전보상, 명예부여**(교수임용) **등 종합 지원** (브레인 스카우팅)

□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○ **기업의 체계적인 SW 인력관리 시스템 확산**을 유도

* SW인력의 커리어패스 관리를 위한 'SW직무수행능력표준' 개발·보급

○ 기업의 **SW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** 부여

*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각종 우대사항 구체화(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)
* 중소기업의 SW 신규인력 채용시, 교육비용 일부 지원(지경부 SW융합채용연수 사업 확대)

□ R&D를 통한 SW 인재 양성 기능 강화

○ 정부 SW R&D의 **인건비 비중 확대(총사업비 50% → 최대 100%)**

* 기술혁신운영요령(지경부),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지침(중기청) 등 각 부처 규정 개정

○ 정부 R&D의 **SW관련 인건비 사용 대상 확대**

* 포지티브 방식(사용 가능 SW기술 열거) ⇨ 네거티브 방식(원칙적으로 허용)

② SW자산 활용 촉진을 위한 『SW 뱅크』 설립

기술·기업 등 **SW자산의 거래·성장**을 지원하는 **기관을 설립**하여 **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**으로 활용 (SW산업진흥법에 법적근거 마련 예정)

□ (기술자산) 국내 개별 SW 기술자산 활용 극대화

○ 기업·출연연·대학 등이 보유한 개별 SW 기술자산* **정보 DB** 구축, 매입 등을 통한 **자산 Pool 구축** 및 **고부가가치화**(기술 보강, 검증 등)

* SW IP, 소스코드, 모듈, 개발 노하우, 아이디어 등

○ 확보된 정보 DB 및 자산 Pool을 활용하여,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**정보·기술 제공** 및 필요시 **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개발** 지원 등 실시

□ (기업자산) 유망 SW기업 양성 및 투자 활성화

○ SW **창의·우수인재 발굴**, 공개 오디션제를 통해 국내외 **창업, 사업화 및 실리콘 밸리 등 해외진출 지원**

* 1단계(R&D지원, 100개)→2단계(창업지원, 30개)→3단계(사업화투자, 10개)

○ **"SW 특화펀드" 조성**, 투자위험 큰 **초기 유망기업 대상 집중 투자, 성장단계별 투자경선제 도입**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

○ 성장 과정에서 **실패한 SW기업의 재활 노력도 적극 지원**

③ SW 특성에 맞는 정부 R&D체계 도입

□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SW R&D프로그램 신설

○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**최우수팀**에 **R&D 과제비를 지급**하는 **「후불형 서바이벌 R&D」** 도입

○ **「소액 도전형 R&D 프로그램」을 신설**, 대학생 등에 R&D 기회 부여

□ SW 고유 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및 탄력적 운용

○ SW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**「SW 전용 평가관리 시스템*」 도입**

* SW 질적 평가지표개발(인력양성효과, 공개SW 활용 기술파급지수 등) 반영
* SW 검증(Testing), 기술컨설팅 등 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상용화 비용 지원

○ 지속적 버전업이 필요한 SW 특성을 감안, **중복성 검사 대폭 완화**

3 SW 융합 활성화

① 임베디드 시스템(임베디드SW + 시스템반도체) 경쟁력 강화

□ 시장 창출형 공동R&D 지원

○ **(융합로드맵)** 주요 주력산업의 임베디드SW-시스템반도체 기술*을 분석하여 **융합 로드맵 수립**('12)

* 장애물 고속 인식 기술(자동차), 공통 SW플랫폼(모바일), 원격 유지보수 기술(스마트가전), 건물 에너지 관리 기술(에너지) 등 융합기술 전수조사 완료

○ **(공동 R&D지원) 주력산업 및 미들테크* 분야**에 **중소SW-시스템반도체기업 + 주력산업 대기업 공동**으로 참여하는 R&D 지원 강화

* 국내 수요가 상당하나 수입에 의존하고, 업계 역량을 결집하면 사업성이 있는 품목

·**(주력산업용 R&D)** 자동차·휴대폰·D-TV 등 **주력산업용** R&D 지원시 SW-시스템반도체 비중을 13%('11)에서 20%('15)까지 비중 확대
·**(미들테크 R&D)** 대규모 국산화 가능 품목에 대해 중소·중견기업이 주도하되, 수요대기업도 지분참여하는 집중지원형 R&D 추진(70억원/년, 5년)
·**(대중소 R&D)** 대기업과 임베디드SW기업간 협력 R&D 확산(200억원/년)

○ **(융합연구소)**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내에 **『임베디드SW-시스템반도체 융합연구소』를 설립**하여 융합연구의 거점으로 활용

* 융합연구소를 거점으로 여러 연구기관 및 산업체 소속 연구자들이 각자 조직의 틀을 벗어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Open R&D 추진

□ 민간 주도의 차세대 SW 플랫폼 구축을 지원

○ 산학연 민간 주도의 **차세대 플랫폼 포럼** 결성 지원

* 스마트가전·모바일·자동차·항공·고속철도 등 산업 포럼별로 플랫폼 로드맵(정책, 인프라, R&D, 표준화)을 수립·추진하고, 정부는 정책에 우선 반영

○ 꾸준한 연구 및 핵심 인력양성을 위한 **SW플랫폼 연구센터 지정·지원**

* 산학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기술 축적, 부가적으로 개발 경험 보유한 인력 배출

○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**오픈 플랫폼 개발**

* 3년간 개발 후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글로벌 공개 커뮤니티에 참여

②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

* 스마트 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PC, 스마트 TV)와 인터넷의 자원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로 향후 연 18.1%의 성장 예상('11년 1,168억불→ '15년 2,213억불)

□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·제도 마련

○ 스마트,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**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법제도 개선**

* 권리자 미상 저작물에 대한 법정 허락절차 간소화, 사적복제 범위파일 공유 기준 등 제도 연구

○ **개방형 웹표준에 기반**한 '한국형 통합앱스토어' 활성화로 **플랫폼 독립적인 개발환경** 제공 및 스마트 콘텐츠에 적합한 **유통 환경 조성**

* 콘텐츠 보호기술 개발, 디지털 저작권 DB범위 확대,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연구

□ 대·중소·1인 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

○ 콘텐츠 **개발업체(중소기업)와 기기·서비스 업체(대기업)가 공동으로 참여**하는 **협력사업 추진**

* 공동 콘텐츠 제작 투자, 스마트콘텐츠 포럼 운영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 등

○ 중소 개발사 및 1인 창조기업이 **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**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* 1인 창조기업·중소기업 공동 R&D지원 및 개발자-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운영

□ 선도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인프라 확충

○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**스토리텔링 공모 등 선도 콘텐츠 개발 활성화**

* 스토리 텔링 공모전, 한류 콘텐츠의 앱 형태 재제작 지원 등

○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**원스탑 지원하는 '스마트 콘텐츠 인프라' 조성**

* 스마트 콘텐츠 애로기술 지원,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, 컨설팅·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

○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5대 광역경제권 지역에 **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센터 구축**

* 방통위/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, 이통사, 대학교, 지자체 등과 매칭 펀드 구성 관련 협의 추진

4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

① 주파수 할당 수입을 SW에 집중 지원

○ '11.8월 실시된 3개 주파수(800㎒, 1.8㎓, 2.1㎓) 경매 결과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(10년간 6,686억원*)을 활용

* 3개 주파수 할당 수입('11~'22) : (당초) 3,990억원 → (변경) 10,676억원

○ 주파수 신규할당 및 재할당 등에 따라 추후 발생하는 수입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SW 분야에 지원

② 정부 부처간 IT/SW 정책 협의체 운영

○ IT 부처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IT 특보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, 정부내 IT/SW분야 공식 협의·조정기구 역할 수행

* 현재 지경부-행안부간 운영중인 IT정책협의회를 타부처로 확대 운영

< IT/SW 정책협의회 개요 >

◇ 구성 : IT특보 + 지경·행안·문화부·방통위 1급
◇ 운영 : 분기별 1회 협의를 원칙으로,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
◇ 협의대상 : IT/SW 관련 공동대책 및 부처별 주요대책 조율
■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안건으로 상정

* 범부처 IT미래비전 2020 수립을 위한 「IT 미래비전 기획단」 旣출범(10.20) - IT 특보를 중심으로 지경·행안·문화부·방통위 국장급, 유관기관 참여

③ SW 정책연구센터 설립

○ SW산업·기술·비즈니스 등의 급변에 대한 사전·사후 예측·분석을 통해 국가 **SW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부여**

* SW관련 산·학·연·관의 역량을 총 집결하고, 민·관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수요 지향적 정책연구·사업 개발

* 정보통신산업진흥원 內 설립